

독자권익위원 칼럼

조상열

독자권익위원
대동문화재단 대표회원·문학박사



‘감투’라는 말이 있다.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사람은 대개 감투 쓰기를 좋아한다. ‘사람은 안장을 채워 췌야 일을 잘한다’는 말도 있다. 감투를 쓰고 안장을 차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만, 권리와 권한도 생긴다. 이것이 감투 쓴 사람의 힘이 되니, 우리는 이를 권세(權勢)라 하고 권력(權力)이라 부른다.

‘줄을 서시오, 줄을 서.’ 감투와 안정, 곧 힘을 가지려는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한다. 본래 질서를 지키라는 뜻이었으나, 어느새 출세를 위해 힘 있는 사람에게 붙으라는 말로 변질됐다.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 줄을 서고, 힘 있는 자는 제 권익을 위해 사람들을 쫓 제운다. 원칙대로 살아서는 출세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는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분야든 관계가 있고 그 사이로 흐르는 맥(脈)이 있다. 이를 인연(因緣), 계보(系譜), 줄이라고도 한다. 중국에서도 ‘관시(關係)’라 해 중요하게 여긴다. 관계 맺음에는 핏줄로 맺은 혈연(血緣), 동문수학의 학연(學緣), 혼인의 혼연(婚緣), 같은 고장 출신의 지연(地緣), 조직으로 맺은 사연(社緣) 등이 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해 혈연을 으뜸으로 여겨 왔지만, 같은 혈

감투와 지도자의 덕목

연도 촌수와 이해득실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혼연은 신분 을 바꾸는 길이어서 정략혼도 허다했다.

인생살이 자체가 줄을 서는 일이다. 뱃줄을 잡고 태어나 평생 줄을 타고 줄을 서며 살다가, 생명줄을 놓고 관(棺) 줄에 묶여 북방산천으로 떠난다. 어떤 줄을 잡고 태어나 어떤 줄에 서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에 모두가 줄 찾기와 줄 서기에 여념이 없다. ‘금수저’, ‘흙수저’도 결국 타고난 줄을 이르는 말이다.

인연에 선연(善緣)과 악연(惡緣)이 있듯 줄에도 생명줄과 씩은 동아줄이 있다. 잘못 잡은 줄은 제 몸을 엉여(罔罽)의 신세로 돌아매거나 나라으로 떨어뜨린다. 제 줄로 제 몸을 묶는 자승자박이다.

인간관계의 줄은 요즘 말로 네트워크다. 누구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무언의 힘이자 영향력이다. 옛 부족들이 제 영역을 지키려고 둘러친 것이 ‘울’, 곧 울타리였다. 오늘날의 네트워크도 소통과 교류보다 그들만의 힘을 지키려는 뜻을 짊어 담고 있는지 모른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권력은 필요에 따라 줄을 세우고, 줄을 찾아 선다. 조선시대 봉당(朋黨)이나 오늘날 여야(與野)도 다르지 않다. 줄에도 새끼줄과 밧줄이 있고, 질긴 고래 싹줄도 있다. 벼집으로 새끼를 꼰 때는 두 가닥에 짐을 이어 넣는 마디를 나란히 두지 않고 엇갈리게 해야 튼신했다. 서로 엇물려 균형을 잡는 음양의 이치다.

새끼 한 타래 꼬는 데도 이러한데, 정치 지도자가 원칙을 무시하고 한쪽오로만 줄을 꼬아 댄다면 어찌 되겠는가. ‘인사가 만사’요 ‘적재적소’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지도자의 으뜸 덕목은 균형(均衡)이다. 조선 임금에게

는 법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도 백성의 사정을 헤아려 융통성 있게 처결하는 권도(權道)가 있었다. 권(權)은 저울추를 뜻한다. 저울은 추를 움직여 형평(衡平)을 맞춘다.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을 잃는다. 균형과 형평의 형(衡)은 저울대이니, 저울추와 저울대를 아울러 권형(權衡)이라 한 것이다. 임금은 백성의 출고 배고픔과 나라 곳곳의 읍지와 양지를 헤아려 지혜롭게 힘을 고르게 써야 한다.

관상에서 지도자의 상으로 꼽는 것이 큰 귀다. 옛 성인과 도인의 귀를 크게 그린 까닭도 민초의 말을 잘 들어 마음을 얻는다는 이칭득심(以聽得心)에 있다. 성인 성(聖) 자에 귀 이(耳)가 입 구(口)보다 앞서고,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인 것도 같은 이치다. 관음보살의 큰 귀도 중생의 괴로움을 듣고 자비를 베푼다는 뜻이다.

성군들도 압행 등으로 백성의 소리를 귀담아들었다. 옛 사대부들은 가마 위에서 조는 듯하며 가마꾼들의 불만을 들었다고 한다. 여론(輿論)의 여(輿)에는 수레나 가마와 함께 ‘못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여론은 곧 이름 없는 백성의 목소리인 셈이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은 균형보다 기득권과 당리당락에 따라 줄을 세우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취꼬리만 한 권력을 조자룡 한 칼 쓰듯 휘두른다. 그러나 정작 무서운 것은 침묵하는 유권자다. 선거 때만 고개를 숙일 것이 아니라 평소 겸허하게 시민의 여론을 잘 듣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미래도 보장될 것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정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경제재정국장



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시설을 현대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발길이 이어져야 한다. 손님이 찾아오고, 가게에 활기가 돌고,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질 때 비로소 시장은 살아난다.

최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 온라인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루하루 가게를 지키며 손님을 기다리는 상인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 남구 무등시장과 군분로 일대에 반가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토요일 저녁이면 한산했던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먹거리와 공연을 즐기며 시장 곳곳에 활기가 넘친다. 바로 올해로 3년째를 맞은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이다.

지난 2024년 첫 선을 보인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은 점쳐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였다. 무등시장과 주변 상점가를 하나로 연결하고, 시장을 단순히 물건이 사고파는 공간에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바꾸자는 취지였다.

그 가능성은 실제 성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네 차례 열린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에는 총 11만8677명이 방문했

고, 행사 기간 군분로 일대에서 약 8억1370만원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50명 가운데 34명, 68%가 매출 증가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야시장의 효과가 먹거리 판매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소비가 주변 상점가로 이어지면서 골목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물론 몇 차례의 행사만으로 상권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 모든 상인이 똑같은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던 거리에 다시 손님이 찾아오고, 상인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군분로 토요일 야시장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세 차례에 걸쳐 1.1km에 이르는 군분로가 다시 활기찬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무한등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야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주민과 방문객에게 특별한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무등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직접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 그동안 행정이 중심이 돼 야시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상인들이 주체가 돼 시장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상권 활성화의 진정한 힘은 결국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에게서 나온다. 행정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인들이 스스로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갈 때 성과는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다.

남구는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 상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교통과 편의시설, 홍보 등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 아울러 야시장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무등시장과 군분로가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중요한 것은 야시장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것이다. 축제 때 한 번 찾았던 손님이 다음 주에도 다시 방문하고, 가족과 함께 즐겼던 시장을 이웃에게 소개하며, 그렇게 새로운 손님이 단골손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토요일 야시장의 성과가 일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우리 동네 시장에서 먹거리 하나를 사고, 이웃 가게에서 물건 하나를 구매하는 작은 소비가 모이면 상인들에게는 큰 힘이 된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 동네 가게를 한 번 더 찾고, 가까운 시장을 이용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지난 17일, 군분로 1.1km에 다시 환한 불빛이 켜졌다. 그 불빛이 단순히 가을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가게를 지켜 온 상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됐다. 남구도 상인들의 땀과 노력이 더 나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뛰겠다. 군분로의 활기가 무등시장을 넘어 남구 골목경제 전체로 퍼져 나가도록, 상인들이 웃고 주민들이 다시 찾는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사설

호남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 서둘러야

전남광주 등 호남권의 재생에너지가 전력망 부족에 발이 묶였다. 지역 발전사업자가 한전 전력망에 연결을 신청했지만 변전소나 배전선로에 여유가 없어 기다리는 접속대기 규모가 전국 대기물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재생에너지 전국 접속 신청 용량(3만8065MW) 중 연결을 마친 물량은 2만9382MW다.

나머지 8683MW 중 5137MW는 계통을 확보한 상태에서 발전소를 건설 중이지만, 3546MW는 계통 용량이 부족해 접속대기 상태다.

접속대기 용량중 호남권이 2298MW로, 전체(3546MW)의 64.8%나 됐다. 이어 영남권 832MW, 충청권 177MW, 강원권 122MW, 수도권 62MW, 제주권 55MW 순이었다. 전력망 용량 부족으로 연결이 막힌 물량 대부분이 호남에 집중된 것이다.

문제는 접속대기를 해소할 설비를 갖추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한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배전선로 신설·보강, 주변압기 20대 증설, 변전소 30개 신설 등을 통해 3417MW의 접속대기 물량을 해소기로 했다. 하지만 해소 물량의 70%가까이를 해결하기로 된 변전소 신설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54kV 변전소 신설에 걸린 기간은 평균 74개월로 6년을 넘겼다. 가장 짧아도 50개월이 필요했고, 최장 96개월이 소요된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한전 계획상 신설 변전소(30개)의 23개가 2028~2030년에 집중돼 있어 변전소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해당 물량의 연결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크게 늘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 인 배전망 준공실적도 저조하다.

이 때문에 이런 전력망 병목현상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력망 확충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영광·함평갯벌 위험한데 침전장비도 없다

영광·함평지역 갯벌의 사고 위험성과 치사율은 높는데, 해양경찰의 침전 구조장비와 순찰 드론 배경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갯벌 사고 및 장비 보유 현황’에는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갯벌 사고는 총 342건(사망·실종 46명)으로 집계돼 평균 치사율 13.5%를 기록했다.

이 기간 영광·함평지역의 갯벌사고는 영광 8건, 함평 1건 등 9건이 발생, 2명이 사망·실종돼 치사율 22.2%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이렇게 높은 치사율에는 영광 배수·염산·범성과 함평 돌머리 등 이 지역 대표적인 갯벌들이 큰 조석간만의 차로 만조 시 성인 걸음보다 빠르게 밀물이 차오르는 고위험 지형인 것이 큰 작용을 했다.

여기에 구조도 지난 2018년에 도입된 노후된 뿔배 등 재래식 장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한 몫했다. 갯벌 구조의 핵심인 에어보트나 수륙양용차와 고성능 8륜 수륙양용 오토바이 등 침전 구조장비에 아예 없는 것이다.

또 해양경찰청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연안순찰 드론 도입 사업 배치 대상에서도 목포해경 관내인 영광·함평파출소는 제외됐다.

문제는 영광·함평 갯벌 지역은 저수지 지형 특성상 해상으로의 직접 접근이 불가능해 육로로 출동할 경우 31~51km를 우회해야 돼 최대 55분이 소요되는 등 갯벌 사고 골든타임을 크게 초과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무엇보다 사고 초기 대응이 중요한 갯벌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출동 지연으로 인명 피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접근이 어려운 연안 위험구역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 추가 도입 및 침전 장비 배치시 영광·함평 파출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골든타임 문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안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지형에 특화된 출동·구조 체계의 재정비도 시급하다.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박 행 인	차재진	사 경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산업경제부 370-702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370-7200 370-7000 370-7093 370-7090 370-7070 370-7080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광남신문과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광남신문(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